

2018 · 01



암환우와 그의 재환을 돕는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호주호스피스협회

(Kor) www.sydneyhospice.com.au • Email: australianhospice@gmail.com • Mob: 0430 370 191 / 0416 758 272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

(Eng) www.australianhospice.com.au

자원봉사 단체상 수상 (주최: 한인공익재단 (KACSI))

제2차 헤세드 힐링(Checed Healing) 공연 (Ainsley Aged Care, Nov. 27, 2017) (아래 좌)

제1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Dec. 18, 2017) (아래 우)



이달의 말씀(The Word of God):

마침 그 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슴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7:21~22

At that very time Jesus cured many who had diseases, sicknesses and evil spirits, and gave sight to many who were blind. So he replied to the messengers, "Go back and report to John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The blind receive sight, the lame walk, those who have leprosy are cured, the deaf hear, the dead are raised, and the good news is preached to the poor. (Luke 7:21~22)

월간·통권 5호
(Vol. NO.5)

Address: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2122,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Publisher: Rev. Jang Dae Kim



암환자와 그의 제할을 돕는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2018

01

C · O · N · T · E · N · T · S

02 2017년 ACC 호스피스 봉사
선교 사역의 갈무리와 ACC
호스피스 2018 비전 선포

06 ACC 호스피스 활동

07 회계 자료

표지 사진설명



호주호스피스협회(ACC)는 12월 4일 한인공익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원봉사 단체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각 부문에 따라 한인 단체 4개, 호주 커뮤니티 단체 4개가 수상하게 되었는데, 각 단체의 활동에 따라 지원금이 1000달러~300달러 까지 차등 지급되었다.

호주호스피스협회는 1000달러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아낌없는 헌신에 감사 드린다. 제2차 헤세드 힐링 공연이 11월 27일 Burwood 에 위치한 Ainsley Nursing Home 에서 있었다. 그곳 전자오르간이 작동되지 않아 즉석에서 육성과 Mobile Phone 를 활용하여 공연을 하였더니, 오히려 자연스러웠고 은혜가 넘치는 공연이 되었다. 제1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난 부활절 공연을 갖고, 또 성탄절에 특별 초정으로 미리 예약되어 있었던 Keyllivile 에 위치한 The Gracewood Center, Baptist Care 였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환우에게는 치유함이 있고, 봉사자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한 해의 호스피스 사역을 마감하면서 2018년 새해에는 ACC 호스피스 공동체에 속한 83명의 암 환우와 17명의 치매 및 중증 환우, 그리고 18명의 남은 가족들, 그리고 115 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 드린다.

2017년 ACC 호스피스 봉사선교 사역의 갈무리와 ACC 호스피스 2018 비전 선포

대표 김장대 목사
호주호스피스협회(ACC)

살롬!

다사다난(多事多難)한 2017년의 뒤편에서 시드니의 여름 햇살은 뜨겁게 남 태평양을 달군다. 12차례의 Nursing Home 방문 콘서트와 50회 이상의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등 수많은 호스피스 사역을 뒤돌아보며 아직도 못다한 돌봄 사역에 아쉬움이 여운을 남긴다. 신년 벽두에 영문 Home Page 개설(www.australianhospice.com.au)을 시작으로 철새 없이 달려왔다. 암 환우와 그의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호스피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을 세 번이나 다녀왔다. 4월에는 처음으로 교류협약에 의해 개최되는 제2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하여 대구동산병원에 다녀왔고, 6월에는 안양 샘 병원과 자매결연(MOU)체결을 위하여 다녀왔으며, 8월에는 부산 고신대 복음병원과 호주호스피스 협회(ACC)와의 새로운 자매결연(MOU) 체결과 제3기 자원봉사자 교육 감사 섭외를 위하여 다녀왔다. 연이어 9월2일 정태식 교수님(고신대 복음병원 호스피스 센터 회장/방사선 전문의)과 함께 시드니에 도착하여 곧바로 토요일 “암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행사”에 참석하여 정태식 교수님이 야외 강연을 가졌다. 최초로 가진 야외강연에 많은 환우와 가족들이 새로운 암 지식을 공유하고 새 희망을 갖게 되었다. 9월25일~9월29일까지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에 아낌없는 봉사자의 헌신과 함께 4종의 암을 다스리고 계신 이종욱 교수님(고려대 의대 상임이사/동서병원부원장/신경정신과의사)을 특별 초청하여 교육을 받았다. 전체 참가자가 50명을 넘었고, 교육수료자는 21명, First Aid 자격과정 수료자는 29명 이었다. 정태식 교수님과 이종욱 교수님께서는 모두 자비량으로 호주호스피스협회(ACC)를 방문하시어 강의를 해 주셔서 더욱 감명과 은혜가 넘쳤다. 10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헤세드(Checed: 친절, 호스피스의 기원) 힐링 전인치유 공연이 Linburn 너싱홈에서 있었다. 처음 시도하는 드라마 치유 공연에 봉사자들은 여타 배우 못지 않게 감동을 주었고, 환우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한 해의 끝자락인 지난 11월 20일 오후 2시에 제1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를 Southern Cross Nursing Home 에서 가졌을 때, “Filla”라는 환우는 “자신이 수많은 콘서트를 이곳에서 보았지만 오늘 같은 콘서트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God bless you. Thank you so much.”를 끊어질 않았다. 모든 봉사자들은 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콘서트를 마치고 오후4시30분에 시작되는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대회에 봉사자들이 함께하였다. 주 시드니대한민국 총영사님의 격려사와 시드니에서 제일 큰 Nursing Home 을 운영하고 있는 Baptist Care 최고경영자(CEO) 이신 Mr. Ross Low 께서

편집실_호주호스피스협회

보내주신 축하 메시지를 읽었다. 연이어 이금귀님 (자연재활치료실 봉사) 과 송정희님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리더) 에게 Baptist Care 로 부터 주어진 감사장 수여와 헤세드(Checed (친절: 호스피스의 기원) Healing Concert 가 ACC 활동 소개를 필두로 시작되었다. 현재 ACC 호스피스 공동체는 11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83명의 암 환우와 17명의 치매 및 중증 환우, 그리고 18명의 남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돕고 있다. 호주한인 이민 70여년의 역사를 거슬러 최초로 개최된 이번 자원봉사자 대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ACC 호스피스의 총 회장인신 예수님께서는 12월 4일 한인공익재단(KACSI, 이사장 승원홍)으로부터 자원봉사 단체상(지원금 \$1000)을 수상하게 하심으로, 그 수상의 영예와 함께 한 해를 갈무리 하게 하신다.



위) 한인공익재단 주최 시상식
아래) 제2차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공연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 가는 시대정신의 연속이다.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헌신하며,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원봉사는

오늘날 시대정신이다. 우리가 하는 자원봉사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나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자원봉사란 우리가 쓰고 남는 시간을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웃을 위하여 드림으로써 보이지 않은 손을 통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지게 만드는 역동적인 삶이다. 다시 말하면 자원봉사란 성경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행 20:35) 라고 하신 말씀을 섬김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역동적인 사역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가 자비량으로 섬기는 ACC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삶이야말로 “죽음 저편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 믿는다.

2016년 8월 3일 출범한 호주 호스피스 협회(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 Hospice)는 그 동안 NSW 주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호스피스 사역을 호주 전역의 다문화 호스피스 사역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은 달란트를 모아 호주사회의 어두운 한 구석을 밝혀나가는 작은 빛으로, 건강한 한인공동체와 천상의 코이노니아를 꿈꾸면서 연약한 암 환우의 도우미가 되고자 시작하였다. 비록 ACC 호스피스 공동체의 근본 정신은 기독교 윤리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종교를 초월하여 암 환우와 봉사자들이 함께 섬기는 샬롬(Shalom, 평화)공동체이다. 2018년 또 다시 ACC 호스피스의 총 회장 되신 예수님께 하얀 도화지를 올려드리며 어떻게 한 해를 그려나가실지 기도 드린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려놓으신 5대 사업, “호스피스 자체 차량으로 암 환우를 돌보는 일,” “호스피스 자체 사무실 개소하는 일,” “10개의 너싱홈에 교회를 세우는 일,” “호주원목협회 설립하는 일,” “너싱홈 위탁 운영하는 일” 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 드린다. ACC 호스피스가 섬기는 모든 환우와 그의 가족, 그리고 봉사자와 모든 교민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I wish you a meaningful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Ending the Australian Hospice Service Mission in 2017 and proclaiming ACC Hospice Vision 2018

Representative, Kim Jang Da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 (ACC)

Shalom!

Sydney's summer sun sets hot in the South Pacific in the wake of the year-ending of 2017. Looking back at numerous hospice ministries, including 12 Nursing Home visit concerts and more than 50 times of the activity "walking along the coast with the cancer patients", I still leave regret in the caring ministry. I have been running all this year starting with the opening of the English Home Page (www.australianhospice.com.au). I have been to Korea three times in order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hospice that can take care of a cancer patient and his/her family. In April, at the first time I went to Daegu Dongsan Hospital for the 2nd Korean-Australian Hospice Education for Volunteers, which is being held by the exchange agreement between ACC and Dong San Hospital. In June, I went to the Anyang Sam Hospital for the sisterhood alliance (MOU) and in August, I visited Korea to invite a special lecturer who will be lectured on the 3rd Korean-

Australian hospice education for volunteers, and then I made a new sisterhood alliance (MOU) with the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and ACC Hospice Association on August 25. On September 2, I arrived in Sydney with Professor Jung Tae-sik (President of the Hospice Center of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 Radiologist) and immediately participated into the hospice activity "Walking along the beach with a cancer patient and his family" on Saturday. Professor Jung Tae Sik held an outdoor lecture.

In the first outdoor lecture we had, many of th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shared new knowledge of cancer and got new hope. From September 25 to September 29, the 3rd Korean-Australian Hospice volunteer education was held with the dedication of volunteers. Professor Lee Jong-wook (Director of Korea University of Medicine /Dongseo Hospital vice-chief /neuropsychiatrist) was invited as a special lecturer. There were more than 50 participants, 21 trainees, and 29 First Aid students. Professor Jung Tae-sik and Professor Lee Jong-Wook visited to the Australian Hospice Association (ACC) at their own expense. The Checed (origin of hospice) healing performance started in October 23 was at the Linburn Nursing home. In the first attempt of the drama healing performance, the volunteers were as impressed as the other actors, and all the residents of the Nursing home could feel the presence of God.

When I had the 16th hospice concert at the Southern Cross Nursing Home at 2 pm on November 20, the patient named "Filla" said, "I have seen a lot of concerts here, but it is the first time when I have a gracious concert like today. God bless you. Thank you so much." All the volunteers glorified God in a heart of gladness as they watched "a soul grateful to God". After the concert, volunteers joined the first hospice volunteer conference, which started at 4:30 pm. I read an encouragement message from Mr. Sang Soo Yoon, the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ydney and a congratulatory from Mr. Ross Low, CEO of Baptist Care. Two hospice volunteers, Lee Keum-Kui (Natural Rehabilitation Therapy Center) and Song Jung Hee (Leader of "Walk on the Beach with cancer patients" program) received individually a certificate of appreciation from Baptist Care, one of the largest Nursing Homes in Sydney. The "Checed (meaning of "kindness" in Hebrew: Origin of the word "Hospice") healing concert" with the introduction of ACC activities was started. Currently, the ACC Hospice Community is supported by 115 volunteers to pray for 83 cancer patients, 17 dementia and severe patients, and 18 remaining families. Although the basic spirit of the ACC hospice community is based on Christian ethics, it is a Shalom (peace) community that transcends religion and serves patients with cancer. It is the first Korean volunteer award ceremony in the past 70 years of Korean immigration history in Sydney. As the president of ACC Hospice, Jesus was awarded a volunteer group prize (\$ 1000 grant) from the Korean Australian Community Support Incorporation (KACSI, Chairman, Seung Won Hong) on December 4. History is the continuation of the spirit of the times led through dialogue between past and present. It is not work that we might do if we have spare time and don't if we have no time. Volunteering is not what we give to our neighbours after we spend for ourselves, but it is a dynamic life that shares our most precious things for our neighbours. In order that what we need in our community is filled with many invisible hands. In other words, volunteering is a dynamic ministry in which we practically experience the words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Acts 20:35) in the field of our volunteering. Therefore, the ACC Hospice volunteer ministry is a beautiful part of our life that enables us to enjoy the blessed life here now that we may live in beyond death.



위) 제17차 찾아가는 음악회(헤세드 힐링 드라마 치료 - 인성실 팀장)

아래) 제17차 콘서트에서 하프 연주와 함께 채송아 RAO 팀장과 환우의 흥겨운 춤

ACC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was established to broaden the Hospice ministry in Australia nationally. ACC registered in Fair Trading and ACNC on August 3, 2016. ACC is willing to be a small light that gathers small gifts and talents that we can offer with our own volunteered sacrifice to light up the dark and difficult corner of the Korean community. ACC hopes to continue to help and support our patients by dreaming of a healthier Korean community. Australian-Korean Hospice (ACC) provides activities such as sea-sidewalks with people who have been diagnosed with cancer every Saturday. In addition, our 30 volunteers visit the Nursing Home every month and have a "visiting concert for the hospice" making beautiful Koinonia in a multicultural environment. We open many health-related seminars to share the joyful testimonials of recovery, provide a volunteer training program, counselling and treatment programs for better health of our neighbours. ACC develops and maintains not only national but als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rough associated activities. All workers in Australian Hospice are volunteers. Since October 2017, by making a Checed healing team we are finding a way to overcome cancer by treating the depression that is caused by cancer. We are praying to Jesus, who is the president of the ACC hospice, how to draw a white drawing paper a year in 2018. I pray that the five projects that Jesus had already painted will be proceeded smoothly, "Caring for cancer patient's delivery by buying our own wheelchair car," "Opening a hospice office," "Establishing churches in ten nursing homes," "Entrusted Nursing Home by government or another organization," "Establishing Australian-Korean Association of Visiting Chaplain." ACC Hospice wishes to God's grace and health for all th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volunteers, and all the Korean in Sydney for all the year of 2018.

제1기 호스피스 순회원목 자원봉사 연수생 모집

호주호스피스협회(ACC)에서는 한 하늘아래 살면서 암으로 고통 당하는 환우와 말기 환우를 돌보는 단체로서 모든 사역자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하였던 한 해를 보내며, 시드니 교민사회의 어두운 한 구석을 밝혀 나가는 호주호스피스협회(ACC)에서 Nursing Home 사역이 활성화 됨에 따라 2018년에 다문화 Nursing Home 에 사역할 순회원목 자원봉사 연수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1. 정규 신학과정을 마치신 전도사 혹은 목사로서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너심회를 방문하여 환우들을 가족같이 돌보실 분.
2.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께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2018설립 예정인 호주한인 원목협회(Korean Australian Association of Visiting Chaplain) 회원 및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3. 교육수료 후 너심회로 파송 받기 이전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4.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본 회 혹은 본 회와 자매 결연(MOU)을 맺은 부산 고신대 복음병원, 대구동산병원, 안양샘병원에서 받을 수 있음.

지원서류: 1. 호스피스 순회원목 지원서 1매 2.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서약서 1매
3. 신학교 졸업 1매 및 성적 증명서 1매

지원서류는 본회 사무실 방문(월요일 오전10시~오후1시) 혹은 본회 홈페이지
(<http://www.sydneyhospice.com.au>)-Donation 에서 다운로드 가능)

모집기간: 2017년 12월15일~2018년1월15일

교육기간: 2018년 1월23일~1월25일

등록비: 무료 (2018년에 실시하는 무료 First Aid 교육 제공)

교육장소: 본회 사무실 (St Phillips Anglican Church,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특별혜택: 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분 중에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1개월간 인턴과정을 마치고 Verification of Voluntary Work 를 Centrelink 에 신청할 수 있음.

DONATIONS

Do not withhold good from those who deserve it, when it is in your power to act. (Proverbs 3:27)

Bank Name: Westpac Bank

Account Nam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ount Number: 032-069-53-7515

<< ACC 호스피스 알림 >>

ACC 호스피스에서는 암 환우와 그의 재환을 돕기 위해 봉사자들과
매주 토요일 바닷가 걷기를 하고, 또한 암환우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특별중보기도회를 갖고,
예약 상담 및 전화 상담, 그리고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환우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찾아가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CC 호스피스는 모든 회원이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8)

◎ ACC 호스피스의 발자취

- 2017.12.18 제1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ylliville)
- 2017.12.4 자원봉사 단체상 수상 (호주한인공익재단(KACSI) 주최)
- 2017.11.20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대회 (Baptist Care로부터 수상자: 송정희, 이금귀)
- 2017.11.20 제1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outhern Cross Aged Care, Marsfield)
- 2017.10.30 제1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t Catherine Aged Service, Eastwood)
- 2017.10.23 제1차 헤세드 힐링 전인지유 공연 (Linburn Nursing Home, Strathfield)
- 2017.9.25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 교육 (특별초청강사: 이종욱 교수) 및 First Aid Training(전체 50명 참가 30명 수료(제3기 21명, 제1기 9명)(First Aid (CPR) Training: 29명 자격취득)
- 2017.9.25 제1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 2017.9.2 특별초청강사: 방사선 전문의 정태식 박사 (Clifton Gardens, 1pm)
- 2017.8.25 부산복음병원과 호주호스피스협회(ACC) 협약 체결(MOU)
- 2017.8.14 제13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U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 2017.8.12 제1차 호주호스피스협회(ACC) 정기총회 결의사항
"Committee"의 한글명칭은 "상임운영이사회"로 하고, 그 구성원의 직위에 대한 한글명칭과 임원은 아래와 같이 정함.
대표(Chairperson/Public Officer): 김정대;
사무총장(Treasurer): 송정희;
부대표(Secretary): 성순자; 협동사무총장 및 감사(Audit): 조철호
- 2017.7.10 제12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 2017.6.12 안양 샘 병원과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와 협약체결 (MOU)
- 2017.6.5 제11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 2017.5.8 제10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oinda Court, Baptist Care)
- 2017.4.25 제2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대구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4.27
- 2017.4.10 제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The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 2017.3.20 제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Meredith House Nursing Home)
- 2017.2.20 제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Woodlands Nursing Home)
- 2017.1.20 제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Estia Health Nursing Home)
- 2017.1.9 ACC Home Page 개설(www.australianhospice.com.au/)(영문홈페이지)
- 2016.12.31 제1회 호스피스 어머니 시상식 (수상자: 이금귀, 장지수, 장정옥) (ACC/SICA 공동 주최)
- 2016.12.22 제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Baptist Care, Shalom Centre) (성탄축하연함예배: ACC-Baptist Care)
- 2016.11.30 제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Summer Hill Nursing Home)
- 2016.9.26 제1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전체 24명 참가 (13명 수료)
특별초청강사: 전재규(대구동산병원 의사/한국호스피스협회 설립자/보훈 고문)
김경환(대구동산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15년경력)
- 2016.9.28 제3차 추수감사주간 음악회(Baptist Care, DHL Centre)

- 2016.8.20 총회(장소: 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3시)
결의사항: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ACC) ABN: 17 110189 115
(호주호스피스 협회)설립 인준: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초대 임원(Committee Member) 선임
Chairperson/Public Officer(대표의장): 김정대
Treasurer(사무총장): 송정희, Secretary(부대표): 성순자, Audit(협동사무총장/감사): 조철호
- 2016.8.3 호주호스피스협회(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BN 17 110 189 115) ANCC 및 NSW Faire Trading 비영리단체 등록

이전 연혁은 홈페이지 참조

◎ 암환우의 필요를 도와 드립니다

- 암환우 상담은 요청시 언제나 가능하며 가정 방문도 가능합니다.
[정기상담] • 일시: 월, 화, 수요일 10:00~16:00
• 장소: 본회 사무실
• 문의: 0430 370 191 / 0416 758 272
(전화로 상담시간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헤세드 힐링 전인지유 자원봉사자 모집

"찾아가는 헤세드 힐링(Chead Healing) 음악회"는 암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으로부터 겪는 우울증을 치료함으로 암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헤세드(Chead)"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현대 영어로 "hospitality" 혹은 "hospital", 즉 "hospice"의 어원입니다. 헤세드 힐링 음악회는 Nursing Home 을 찾아가서 환우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과 고독감, 그리고 혼란스러운 자신의 감정을 음악과 드라마를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치유에 활력을 공급하는 전인지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코서트 중에 "드라마 치료"는 많은 대사들을 외우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연극보다는 암 환우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봉사자들이 극중 인물로 참가하여 그들이 생활현장에서 만나는 흥미롭고 진솔한 일들을 연극으로 보여줌으로 환우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죽음 저편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며, 죽음을 다스리는 역동적인 삶을 전개하는 전인지유 프로그램입니다. "사랑아 나의 슬픔이 어디 있느냐 사랑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아 쓰는 것은 죄의 권능은 올림이라" (고린도전서 15:55-56)과 고백한 사도 바울의 역동적인 치유신앙을 호스피스 사업에 적용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ACC 호스피스는 "암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암이 쓰는 것은 우울증이며 우울증의 권능은 이기심이라"고 고백하며 이웃과 더불어 봉사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 드라마 치료 재능 봉사자/ 미술치료 봉사자/ 음악치료 봉사자/ 악기(피아노, 기타 등)/
(2) 영어번역 봉사자- 매월 영문소식지 번역 봉사자/ 영어통역봉사자- 매주 너싱홈을 방문하여 호스피스 봉사 팀과 타국 환우들을 보살필 수 있는 봉사자
연락처: 0430 370 191 / 0416 758 272

◎ 호주 시드니 호스피스와 해외 협력기관

- 부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복음병원 호스피스 센터 (대한민국의 수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기독교 병원)
- 대구 동산 호스피스회 (1899년에 미국 선교사 존슨 의사에 의해 제중원(濟衆院)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대구 최초의 근대병원)
- 한양샘 병원 (한국 기독교 의료선교의 요람- "질병을 치유하지 말고 사람을 치유하라"는 뜻 고집 철벽은 없다. 다만 뜻 고집 사람이 있을 뿐이다")

◎ 암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 대상: 암환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Circular Quay 3번 부두
- 준비물: 도시락, 물
- 연락: 0405 317 843(송정희 리더)/ 0430 370 191

◎ 제18차 찾아가는 헤세드 힐링 음악회

- 장소: Estia Health Nursing Home, 94 Bowden St, Ryde NSW 2112
- 일시: 2018년 1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소식지 ACC 회계자료 (11 / 2017)					
수입			지출		
이름	금액	항목	항목	금액	비고
GNA Support GNA SOLUTIONS PT	200	(100+100) Donation 은 nab	통신비	69.35	
Soon Hee Lee	20	MEMBERSHIP FEE	인쇄홍보비	782.5	
In sook Lim	50	MEMBERSHIP FEE	차량유지비	45	
Han Yong Lee	40	MEMBERSHIP FEE	관리비	110	
Hyung sun Lee	50	MEMBERSHIP FEE	식대 및 부식비	272.5	
Se woo Lee	10	MEMBERSHIP FEE	경조비	100	
Sung Ok Hong	120	MEMBERSHIP FEE	행사 및 세미나	1803.29	자원봉사자 대회 및 바닷가 BBQ
Kyung Sook Lee	120	MEMBERSHIP FEE	사무용품	173.1	
Dong Sik Son	120	MEMBERSHIP FEE	회계사. 변호사	0	
Young Jin Kim (Herbalife)	1500	Donation (기금함)	보험료	868	ACC 보험 2018 nab check
Jung Hee Song	100	Donation (기금함)	water	0	
Etc	110	(기금함)	First aid	0	
T- shirts	75	처음 T-shirts 살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돈	Donation	300	St Philip's Anglican church
Young Hee Kim	100	Donation		4523.74	
Jung ki Min	100	Donation			
Jung ki Min	50	MEMBERSHIP FEE			
Dong Jin Lee	50	MEMBERSHIP FEE			
Harp group	50	Donation			
Jangdae Kim	110	MEMBERSHIP FEE			
SoonJa Sung	110	MEMBERSHIP FEE			
Elhis Kim	10	MEMBERSHIP FEE			
Sarang Kim	10	MEMBERSHIP FEE			
Ea Sun Jung	88	정애선님 감사식대 도네이션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			
INTEREST w23	0.44				
INTEREST w15	0.13				
MISCELLANEOUS CREDIT	50	(10 월 입금액 중 은행 착오 분)			
11 월 수입 Total	3243.57				
*SICA to ACC 이동	1000	*17/11/2017 (SICA to ACC)			
*sydney light and salt	300	6/11/2017 sica 은 입금			
*jingeun yoon BOK CHOI	100	8/11/2017 sica 은 입금			

● 본 회의 기부금은 호주정부세금감면혜택(DGR)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 입금 계좌명 및 계좌번호

후원 계좌명(Account Nam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Bank	BSB No.	Account No.
Westpac	032-069	537515
NAB	082-451	68-612-2677

* 정성어린 후원금은 ACC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주요 활동

삶과 죽음이란 두 갈래 길에서 어떤 치유가 지혜로운 선택일까 갈등하며 힘들어 하는 환우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합니다. 환우의 신앙과 무관하게 그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호스피스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환우의 필요를 돕기도 하지만 할 수 있다면 환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지혜로운 방향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치유의 효능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신 창조원리에 의한 치유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치유되고 있는 많은 극복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바른 삶이 치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암 환우와 그 가족을 섬깁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통역지원, 환우와 함께하기, 환우와의 상담지원, 환우와 가족을 위한 필요 돕기 등등
2. 암환우의 치유에 도움을 드립니다.
 - 투병중인 환우나 암을 극복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추천하여드립니다.
 - 암환우의 회복에는 심리치유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암환우와 함께 웃음치유, 미술치유, 음악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암환우와 가족들을 즐겁게하여드립니다.
3. 암환우와 그의 가정의 회복을 도와 드리며 교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걸기를 실시함으로 연약한 암환우의 건강이 회복되며 그의 가정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되는데 기여합니다.
 - 암환우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바닷가 걸기를 함으로 교민사회에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 교민 사회에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합니다.
4. 호스피스 자원봉사와 성경적 의학 교육
 - 약한 자를 돕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기법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교육과 비정기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5. ACC 홍보활동
 - ACC 활동의 홍보는 정성어린 교인들의 기부금과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호스피스 투데이(Hospice Today)"란 명칭으로 월간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 암환우에게 새소망을 주고 교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년 1회이상 특별 공연을 실시합니다.
6. 임종과 장례지원 및 남은 가족을 지지해드립니다.
 - 형편에 따라 검소한 장례가 치러지도록 도와 드립니다.
 - 환우가 떠난 후 남은 가족들이 속히 슬픔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위)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걸기 송년 바비큐를 마치고 모래 밟기 (2017 11 25)



월요 중보기도회 송년 모임(2017 12 11)-
(환우와 환우 가족의 헌신으로 월남 씬)

ACC
Australian Cancer Care Inc

◎ 발 행 처: ACC 호스피스 협회
• 비영리 단체등록법인(ACNC): ACC(ABN:17 110 189 115)
주소(Add.):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 Mob: 0430 370 191, 0416 758 272
• E-mail: australianhospice@gmail.com
or sydneyhospice@gmail.com
Web: www.australianhospice.com.au(Eng) /
www.sydneyhospice.com.au(Kor)
발행날짜(Date of Issue): 2017년 12월 18일
• 발행(Publication)/편집(Edition): 김장대(Rev. David Kim)
• 인쇄(Printing): JC 우리인쇄소